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 요금 MJ당 1.04원 인상"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가스요금도 16일부터 MJ당 1.04원 인상을 한다.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월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로 사용량의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으나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한다.

요금 분납은 당월 요금의 50%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전·ON'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5월 16일부터 MJ당 1.04원 인상을 한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라고 가정할 때 월 4400원가량 증가하는 수준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가스 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된 바 있으나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돼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 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한다. 가스공사는 전년도 사용량 대비 일정 사용량 이상 절감(7% 이상) 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지역 일자리, 시-도간 경계를 넘어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는 힘!

경북도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 일자리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성과와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지역 고용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역고용학회 주관하는 춘계학술대회와 연계해 추진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에 대해 진단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 구조 혁신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는 정부 발표에 앞서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지역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구상했다.

지역 위기 극복,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북 취업자 수 증가율이 146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2천명(3.7%) 증가, 고용률은 62.9%로 1.9%p 상승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뚜렷한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날은 경북, 강원, 대구, 대전, 충북, 경기, 부산, 전남, 전북 등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지역 일자리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 전환기 지역 고용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역 일자리 전문가들은 정부에

시도 자율성과 일자리 예산 지원 확대 건의를 촉구하고,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역 일자리 활성화 정책 방안을 공유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둘째 날은 지역 고용정책 연구 발표 및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 노동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 일자리 모델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방향 토론회가 함께 개최됐다.

세계적인 추세로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산업의 재편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등 인구감소 심화에 따라 지역의 미래 산업 대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은 경주·영천·경산을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노동 전환에 따른 일자리 유지와 인력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올해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공모를 앞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광역과 기초를 넘어선 협력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기업 간,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산업대전환 수퍼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산업 전환 위기에 지역기업 공동 협력을 위해 원·하청 기술지원과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날 참석한 경북도 자동차 부품 기업 관계자들은 발제 내용과 경북에서 추진하는 미래차 전환 프로젝트에 공감하며,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원동력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가 답"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시-도간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www.k-oceans.co.kr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최] 경상북도 GYEONGSANGBUK DO | [주관] mire | [주관] 원동해산업연구원 | [주관] exco | [후원] 해양수산부 GYEONGJU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사)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
수량: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해가세요~

★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어귀촌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수상레저 특별관(요트, 보트, 제트스키), 지자체 관광지 등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 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문의 | 053.601-5256

자세히 알아보기

평택시, 여름철 자연재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5일 통북, 통북2 배수펌프장 시설점검 및 가동 훈련을 실시하고, 지난 12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극복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동해야 하는 주요시설로 이번 가동훈련을 통해 시설 운영에 문제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설비, 펌프, 수문 등을 일제 점검하고 가상의 기상 상황에

따라 배수펌프장을 실제 가동하는 훈련을 했다. 또한 보고회에서는 16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올여름 기상 전망, 부서별 추진실적, 향후 계획,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모든 안전 위협 요인에 대해 유비무환 자세로 대비하자"라며, "부서별 즉각적인 대응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시영기자

경기도, 저출생 대응 위해도민 200명 참여하는 '(가칭)인구2.0위원회' 만든다...김동연지사가 월 1회 직접 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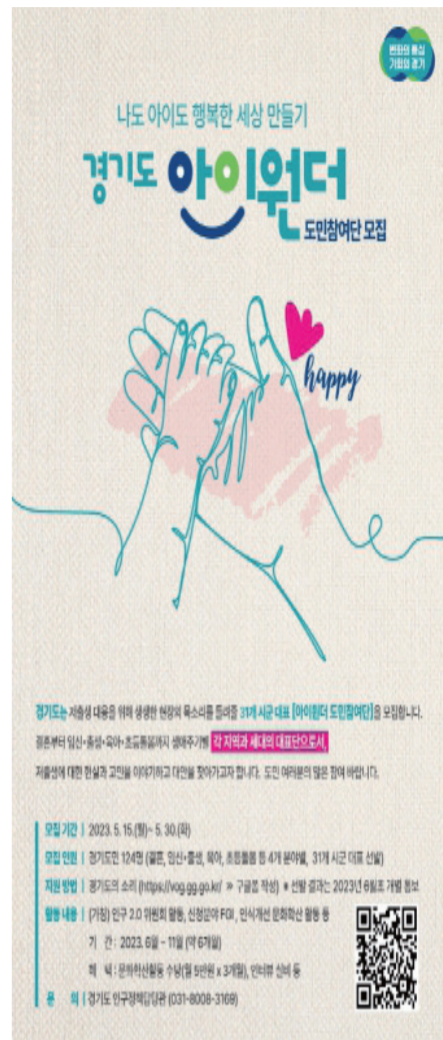
도지사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직접 주재하는 도민 참여형 '(가칭)인구2.0위원회' 추진

경기도가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위원회'를 발족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시도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미국 1.64명, 일본 1.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한국이 0.78명으로 유일했다. 결혼 건수는 지난 10년 새 40%, 첫째아 출생아 수도 37% 하락했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63.9%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인데 실제 둘째아 출생 비중은 35.7%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첫째아 출생은 결혼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더해지지만 둘째아 출생은 정책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해준다면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민에게 장애요인의 원인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의 도민참여단 인력풀은 ▲출생, 육아, 돌봄의 현장에 있는 도민 ▲가족친화경영인증기업 대표 ▲사회학자(인구학), 육아정책, 청년일자리 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청년, 육아맘 등의 도민참여단을 지칭한다.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은 6개월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며 ▲결혼(미혼, 예비·신혼부부 포함) ▲임신·출생(무자녀·난임 포함) ▲육아(만 1~5세) ▲초등돌봄(1~3학년) 분야별로 31명씩 총 124명으로 구성된다. 시·군별로는 결혼, 임신·출생, 양육, 초등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심층인터뷰(FGI)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지역 상황을 공유하면서 인구 인식 개선 문화확산을 펼치며 '(가칭)인구2.0위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구성된 아빠하이,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은 같은 기간 별도로 모집해 위촉하고 명칭도 도민 공모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가칭)인구2.0위원회' 발족은 김동연 지사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시작부터 저출생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며 관행과 기존의 틀을 깨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인구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청년, 육아맘 등 도민 4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하고 3월에는 2회에 걸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 복잡한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양시, 청렴지기 한자리에 모였다...청렴지기 워크숍 개최

최대호 시장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조언 통해 청렴한 안양시 만들겠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촌 파티엘하우스에서 '청렴지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해 신규 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서별 청렴지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청렴지기는 총 100명으로 청렴시책 발굴과 전파, 직원들의 자율적 청렴실천 유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렴지기 대상 워크숍은 '함께 생각하는 청렴교육', 간부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벽을 허물고 유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과의 청렴소통', 청렴지기 역할 및 청렴시책 안내, 직무 스트레스를 풀어줄 '아로마테라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렴지기와 최대호 안양시장이 1시간 동안 함께한 청렴소통은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청렴퀴즈, 밸런스게임, 청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청렴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이야기를 이끌어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젊은 직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돼 기쁘다"며 "동시에 직원들의 고민과 조언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렴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선배 공직자로서,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우용기자

고양시, '2023 유사나 아시아퍼시픽 컨벤션' 성공 개최 완료

고양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양특례시 컨텍스에서 '2023 유사나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행사가 열려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고양컨벤션뷰로, 컨텍스 4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말레이시아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고양특례시로 최종 유치한 이번 컨벤션은 아시아 12개국 외국인 5,132명을 포함하여 총 10,645명이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이번 컨벤션을 통해 행사 기간 동안 고양시 및 김포 등 인근 도시 호텔 사용 점유율 90% 이상을 달성했고, 고양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3개사 이상을 포함한 고양시 소재 업체를 활용하여 약 20억원에 가까운 직접적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고양MICE얼라이언스의 회원사인 '(주)플랜업컴퍼니'가 본 행사의 대행을 맡아 행사를 운영·지원하

여 원활한 지역 사회 활용 및 기업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본 유사나 행사는 유사나 기업의 가치와 비전인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실천하기 위해, 유사나 자사 사회 공헌 재단인 '유사나 파운데이션'은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함께 1천 개의 푸드팩을 국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해 더욱 의미가 컸다. 이 외에도 전 세계 다양한 종족 11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선수들의 섭취 노하우와 제품 우수성을 전달하는 무대와 글로브 아티스트인 비(Rain)의 공연과 마술사이자 동기부여 강연자인 빈지앙(Vinh Giang)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고양컨벤션뷰로 이상열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많은 분들에게 MICE도시로서 고양특례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및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



을 달성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MICE 시설 및 인프라를 갖춘 고양특례시에 대형 기

업회의를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광명시, 시민과 행정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민관협치사업 추진... 2023년 협치예제 및 제안사업 발굴

광명시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11일 2차례에 걸쳐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민관협치기구 위원 40여 명과 함께 협치예제 발굴과 협치사업 제안을 위한 '2023년 협치예제 및 주민참여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토론회에 앞서 광명시 민선 8기 공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후보 분야를 선정하고, 시민참여커뮤니티 등 시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치기구 위원들의 사전 투표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와 건강사회 ▲마을공동체와 마을경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문화예술과 시민문화 등 시의성 있는 분야 4개를 선정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가 4개 분야로 나뉘어 더욱 풍부한 논의를 이끌었으며, ▲50대 놀이터 조성사업 ▲광명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자원순환을 위한 '광명보석함' 운영 ▲다함께 마을공동체 광명해요! ▲광명 365수변문화Day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특 예술특 토론회 개최 ▲푸른광명 재정비 등 다양한 의제와 사업을 도출했다. 아울러 시민과 행정이 함께 역할을 맡아 협치실행사업으로서 시행하

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복지와 건강사회 분야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참여커뮤니티 위원은 "시민의 삶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복지에 대한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꾸준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창석 시정협치협의회 위원장은 제안된 다양한 의제와 사업에 대해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현안과 문제점을 의제로 모

아 그 해결방안을 사업으로 담아내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며, "협치적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제도화되면 민과 관이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민관협치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광명시 협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들은

윤용민기자

인천 동구,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성료

인천 동구는 12일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치매 환자 및 가족,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동구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와 인천교근린공원 일대 3km를 걷고 치매 예방 정보 및 만성 질환 예방, 금연·절주 등 다양한 건강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해 지역 내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동구치매안심센터는 앞서 대면 행사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이달 1일부터 걷기 앱을 통해 10일간 총 걸음수가 7만보를 달성

한 주민 2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따뜻한 봄날에 많은 사람과 함께 걸으니 기분도 좋아지고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치매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희망의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부산시, 제51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 개최

성년의 날 기념 부대행사로 1층 로비에서 한복체험 및 포토존 운영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제51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늘(15일) 오후 2시 여성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전통 성년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 행사는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 성년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건장한 성년 문화 정신을 심어주고자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성년의 식(전통 성년례 재현)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20세가 되는 남녀 성년자 18명이 전통 관복복장을 갖추고 성년례의 의미, 한복입는 법, 절하는 법 등 예절교육을 받게 된다.

본행사에서는 ▲큰손님과 성년자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년자에게 세 가지 축사를 하는 삼가례 ▲갓을 씌우고 비녀를 꽂는 의식인 관

례와 계례 ▲성년자에게 성년이 됨을 선언하는 성년선서와 성년선언 ▲성년자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수훈례 등의 순서로 전통 성년례를 현대에 맞게 재현할 예정이다.

식후 행사로는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의 한국무용, 민요판소리, 가야금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부대행사로 한복체험 및 포토존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층 로비에서 운영되며,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정희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올해 성년이 되신 분들을 축하하고, 앞날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성년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송준진/기자



구미시, 반 고흐 걸작들 무대에서 영상과 음악으로 살아나

구미시는 6월 10일 오후 3시, 7시에 기획공연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을 무대 위에 그려낸 작품으로, 가난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정실직 지주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던 동생 '테오 반 고흐'가 주고받은 900여 통의 편지를 바탕으로 재해석해 만든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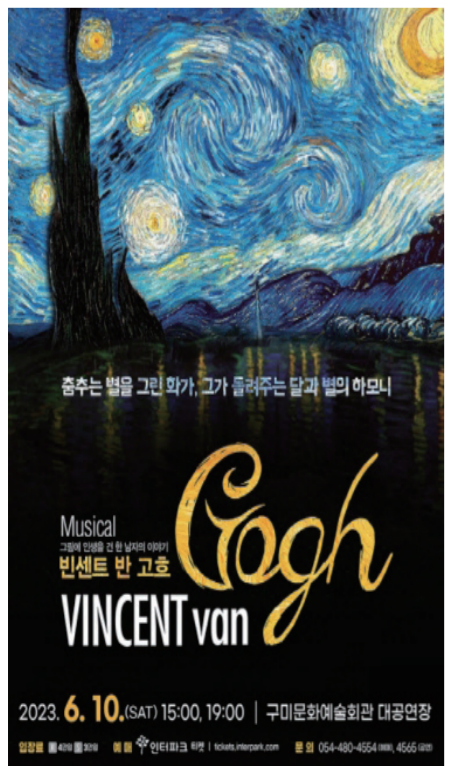
2014년 초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으며, 국내 최초 일본 레플리카 수출 및 중국 라이선스 공연까지 마친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3D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고흐의 그림과 선우정아 작곡의 서정적인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구미 공연에서 '빈센트 반 고흐'역에는 '라흐마니노프', '보도지침', '세종, 1446', '검은 사제들' 등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는 박유덕이, 동생 '테오 반 고흐'역에는 '멸화군', '리틀잭', '더 픽션' 등의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황민수가 출연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윤희선 문화예술회관장은 “최첨단 영상 기술을 통해 무대 위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마치 미술관에 와 있는 듯 무대 자체가 거대한 캔버스가 되는 마술과 같은 시간을 경험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의 티켓가격은 R석(1층) 4만원, S석(2층) 3만원으로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구미시민 및 구미시 기업체 직원들에게는 티켓 정가의 30%, 구미시 다녀가정은 4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성황리 마무리

내년 봄에 다시 만나, 산나물 파티!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가 5월 11일(목)부터 5월 14일(일)까지 4일간 영양군청, 영양전통시장, 일월산 일대에서 방문객 12만여 명을 맞이하고 약 6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한차례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영양산나물축제는 청정 영양 산나물의 맛과 정취를 한껏 즐

길 수 있는 영양군의 대표 축제로서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관광객에게 건장한 기쁨을 선사하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표 '봄' 축제로 발돋움해왔다.

본격적인 대면축제의 부활이만큼 마스크를 벗은 밝은 얼굴의 방문객들이 4일간 12만명 정도가 영양을 다녀갔고 산나물 판매를 비롯하여 약 6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SK실트론 '초순수' 정식공급...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에 탄력

김장호 구미시장,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구축현장 방문

구미시는 15일 초순수 국산화 정식공급(1단계)을 앞두고 SK실트론의 실증플랜트 구축현장을 방문해 초순수 생산 및 통수시설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기판인 웨이퍼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수로, 세척액이 오염되면 반도체 회로 공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순수는 미생물, 전해질, 유기물 등 불순물을 거의 '제로(0)'상태로 제거하는 '극정제화' 작업을 거쳐 생산된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공정이 7단계인 데 비해 초순수는 25단계의 공정을 거친다. 이런 세밀하고 복잡한 공정 때문에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만 초순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내 초순수 시설은 일본-미국산 장치를 사용하며 일본 초순수 기업들이 설계 및 분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초순수 국산화를 위해 SK실트론 구미2공장에 하루 2,400톤 규모의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는 외산 플랜트와의 기술력 비교검증을 위해 총 3단계로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에 정식공급하는 1단계 구축 플랜트는 그동안 외국에 의존했던 설계시공을 최초로 국산화한 플랜트로, 하루에 1,200톤의 초순수를 SK실트론 웨이퍼 공정에 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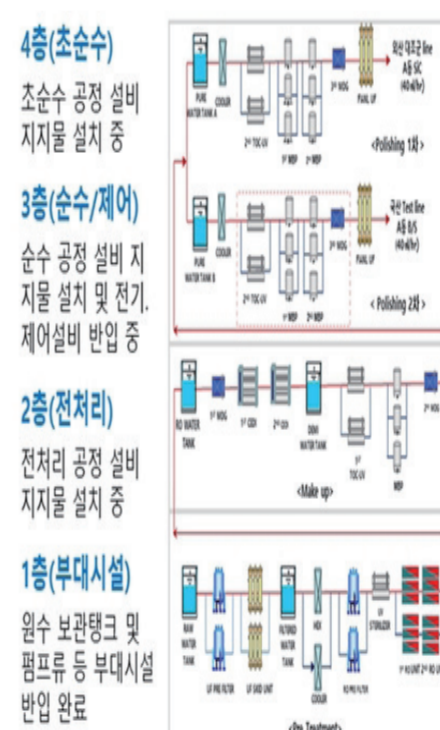
또한, 금년 말까지는 개발중인 국내장비를 적용해 1,200톤의 초순수 국산화 플랜트(2단계)를 추가 구축하고, 플랜트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운영시스템을 구축(3단계)해 성능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초순수 국산화 실증 플랜트가 완성되면 초순수 공정의 최대 60%를 국산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물 다소비 산업으로, 사용 용수의 50%를 초순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인 초순수의 국산화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 중심의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을 위한 생태계도 한층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에서 시작

한 초순수 국산화는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화에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며, 반도체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동현/기자



김천시, 노인 무료 안(眼) 검사 시행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5.11(목) 지례면에 있는 예지원에서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44명에게 무료 안(眼) 검사를 하여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 3명을 발견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를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지정받아 안과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검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검진 전 대상자들에게 시력검사, 안저검사, 굴절검사 등을 시행하고 안과 전문의사의 진찰을 통해 돋보기, 일회용 안구 건조 예방용 점안액 등을 배부했으며, 현장에서 3명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한 검진 받은 144명에게는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부터 검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르신이 검진 후 수술이 필요할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개안수술비 본인 부담 전액을 지원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검진에 참여한 144명 대부분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어르신들이었으며, 검진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아 노인 등 시력이 현저히 떨어져도 교통이 불편하여 검진받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김천시에 감사하다”고 했다.

권세숙 중앙보건지소장은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안 검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대학병원 안과전문의 2명의 선생님과 한국실명예방재단 검진팀에게도 감사하다”고 했으며, “눈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사전에 알고 수술 필요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어르신들이 밝은 세상을 보면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농·특산물 해외시장 공략 강화 나서

미국 H마트 현지 판촉행사 및 수출확대 업무협약 체결



예천군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칼슈타트 소재 H마트 본사에서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H마트 권인연 회장, 수출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천군과 H마트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예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고 H마트는 특판 행사 지원으로 예천군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판매 시장을 개척하고 예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수출에 한층 더 탄력을 받아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13일에는 H마트 리지필드 매장에서 교민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

로 쌀, 참기름, 된장, 고추장, 단무지, 버섯, 사과즙, 부각, 생강청, 고춧가루 등 10여개 품목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했으며 향후 미국 전체 매장으로 점차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권인연 회장은 “교민들뿐만 아니라 최근 현지인들 사이에서 케이팝 영향으로 한국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예천군 농·특산물 수출과 신규 시장 개척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H마트 체인점을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며 “더 다양한 종류의 농·특산물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생산과 홍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판로 확대 및 시장 개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경로당“찾아가는 한방사업”운영



청송군보건의료원은 교통취약지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16일 ~ 7월 11일까지 찾아가는 한방사업 운영한다.

진보면 광덕1리, 부남면 하숙1리 경로당(2곳)을 중심으로 한방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에게 1:1 건강상담 후 침술을 시행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한방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됐던 대면 건강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령층 및 만성질환 어르신의 신체적·정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노년기 자가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송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가구를 발굴하여 1:1 방문건강서비스(고혈압·당뇨관리 및 건강상담, 영양식제공, 암환자 건강교육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불편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 및 보조기기 대여서비스(휠체어, 지팡이 외 8종)를 운영 중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교통취약지 어르신에게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노인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울릉군, 청소년의 달 맞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울릉군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5일에 한마음회관을 중심으로 울릉교육지원청, 울릉군의회, 청소년참여기구, 울릉군청소년센터,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폭력없는 세상, 관심이 필요합니다” 등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독려했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이외에도 학교폭력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청소년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중.조강제/기자

사천시, 2023 별용동민 행복힐링걷기 성황리에 마쳐



사천시 별용동체육회는 지난 14일 사천실내수영장 일원에서 개최한 '2023년 별용동민 행복힐링걷기'가 19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걷기대회는 사천실내수영장 앞 야외농구장에서 출발해 저수지 밑 용두공원다리를 반환해 다시 야외농구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별용동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진행됐다.

또한, 별용동체육회는 참가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사전 운동과 함께 걷기코스 주변마다 안

전요원을 배치했다. 이날 걷기대회는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참가한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생수를 제공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세탁기, TV 등 36점의 생활용품을 지급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오영주 회장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전한다. 특히,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회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경북도, K-관광로드쇼 참가...싱가포르 관광객 공략!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국 속의 진짜 한국, 경북 관광 매력 알려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 대형 쇼핑몰(OTH)에서 열린 “싱가포르 2023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국내외 여행업계 58개사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경북도는 ‘Real Korea in Korea, Gyeongsangbuk-do(한국 속의 진짜 한국, 경상북도)’라는 테마로 한국관광홍보관 내 경상북도 홍보관을 운영했다.

경북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웰니스, 미식, 액티비티 등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K-드라마 인기에 힘입은 도내 한류 촬영지를 홍보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약 100여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새겨진

다양한 기념품 증정과 함께 하회탈 목걸이 만들기 등 경북의 특색이 살아있는 체험 이벤트 운영으로 경북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켰다.

또 경북의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경북관광의 매력을 독특하게 각인시켰다.

이외에도 B2B 교류 행사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했으며, 5월 말 여행사 및 미디어 20여개사를 초청해 경북 가족여행 상품 개발 및 출시를 위한 팸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난해 경북도는 싱가포르여행사협회와 우호교류 협력 협약을 맺고, 이번 싱가포르 한국관광 로드쇼에 참가하면서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싱가포르 ‘Public School Holidays’ 기간에 가족 단위의 많은 관광객들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준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경북도 시군평가 최우수 수상

2년 연속 군부 1위 달성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한 2022년(2022년 실적)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군부 1위와 함께 2010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한 2022년(2022년 실적)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군부 1위와 함께 2010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군평가란 지자체 합동평가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 시책 등 추진 실적에 대해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17개 시도를 평가하고, 시군구 실적에 대해서는 도 역점시책을 포함하여 도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지자체 모든 영역의 행정역량을 판단하는 만큼 전 관·과·소, 읍·면이 매진하는 중요한 평가이다.

지난해는 98개 지표를 통해 시군의 행정역량을 진단했으며, 군은 78개 정량지표 중 90%의 높은 달성률

을 기록하며 군부 1위의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복지분야와 농업분야에서 월등히 우수한 면모를 보였다.

의성군은 지난 평가지표를 되돌아보고 부진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매월 실적 점검, 다부서 협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력을 다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준 직원들과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지지가 있었던 결과”라며 “우수한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군민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문경시, 국가무형문화재 김삼식 한지장 공개행사 성황리에 마쳐

도 무형문화재 김춘호 전승교육사도 함께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문경전통한지 전승교육관(농암면 소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김삼식 한지장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김춘호 전승교육사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매년 한차례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행사는 백피 제조, 한지뜨기 시연, 황축규 파종 등의 전통한지 제작 과정을 김삼식 장인과 김춘호 전승교육사가 함께 시연했다.

김삼식 한지장은 1946년도에 현재 문경전통한지 전승교육관이 위치한 농암면에서 태어나 1955년도에 전통한지에 입문했고 그 후 70여 년간을 한지 외길을 걸어왔다. 1963년도에는 문경전통한지를 설

립하고 한지 제작의 전 과정을 전통 방법으로 고수해 왔으며 그 결과로 2005년도에 경상북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21년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된 바 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인 김춘호 장인도 김삼식 선생 아래에서 20여 년간 그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김삼식 장인은 “한지는 우리 민족의 인류문화유산이며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한지에 대해 잘 모르셔서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위기이다. 앞으로도 양질의 한지를 만들어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마지막 봄꽃 연분홍빛 ‘철쭉’의 향연...‘영주 소백산철쭉제’ 27일 개막

5월의 마지막 주말 영주에서 마지막 봄꽃, 연분홍빛 철쭉의 향연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펼쳐진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2023 영주 소백산철쭉제’를 오는 27~28일, 이틀간 서천 둔치와 소백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철쭉제는 ‘知(지)·好(호)·樂(락)’; 알리고·느끼고·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영주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축제를 즐기고,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관행적으로 진행

되던 내빈소개와 축사, 인사말을 축소하고 개막식, 폐막식도 생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특히 ‘철쭉! 땀으로 스며들다!’(클라이밍 & 어드벤처 체험), ‘철쭉의 낭만! 열기구&문보트, 영화 상영 등 쉽게 접하기 힘든 다채로운 체험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우며 시민 화합을 도모한다.

또한, 소백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피아노 공연 ‘비바, 클래식 with 영주 소백산’을 통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

올해 철쭉제는 소백산 인근에서만 개최되던 지난 행사와 달리 축제장을 시민의 휴식처인 서천 둔치로 이원화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봄철 나들이객을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영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영주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축제를 추진하겠다. 소백산 철쭉의 분홍빛 정취 속에서 행복한 추억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임이자국회의원, 옛 스승 이철우 경북도지사 찾아 인사

임 의원, 국회의원 당선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인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교사 시절 제자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먼저, 지난 10일 상주 화령중학교 교사 시절 제자였던 임이자 국회의원이 이철우 도지사를 찾아 감사의 뜻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특히,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철우 지사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의성 신평중학교 7기 동기회 제자들이 도청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 내외분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준비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줬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은 교사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을 준비해와 서로 감상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훌륭한 지역 일꾼들이 돼 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줘 고맙다”며 “이제 스승은 도지사로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제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승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1978년 상주 화령중고등학교,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의성 신평중학교과 단밀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윤근수기자



달서구, 오늘은 선생님도 아이들처럼 즐겨요!

대구 달서구는 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난 13일 계명문화대학교 대강당에서 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49개소 보육교직원 500명이 참여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영·유아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 교직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유대감 형성 및 소속감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최했다.

코로나 19로 3년 만에 진행된 체육대회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로 애어

사다리, 풍선높이세우기, 고리던지기, 협동징검다리, 상싱카,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일상에 벗어나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동료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시간이 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먼저, 보육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체육대회가 보육인 여러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드높이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하회별신굿탈놀이’호주‘멜버른 코리아 페스티벌’ 뜨거운 현지 반응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펼쳐진 탈춤 한마당에 관객들 어깨춤 덩실덩실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열린 멜버른 코리아 페스티벌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멜버른 코리아 페스티벌은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 축제로 호주인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사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비롯한 한복 패션쇼, 태권도 시연, K-Pop 댄스 공연이 열려 한류 열풍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공연은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버른 분관과 빅토리아주

멜버른 한인회에서 안동시와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를 공식 초청해 이뤄졌다.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4시 분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열렬한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태평소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무동마당을 시작으로 주지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을 소개했다. 관객들은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춤사위에 웃음을 자아냈고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었다.

지난 2월 베네치아 카니발에 이은

이번 공식 초청 공연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문화 1번지 안동’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동시 참가자들은 공연무대 옆에 마련된 홍보 부스에서 하회탈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세계유산 도시 안동’ 방문을 홍보했다.

14일(현지시간)에는 성공적인 페스티벌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빅토리아주 교민들에게 탈춤공연을 선보였다. 교민들과 만찬을 나누며 양 도시 간 문화 교류 협력을 다지는 친교 시간도 가졌다.

한인회 관계자는 “멜버른 한인사회가 하나 되어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교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신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호주 멜버른 코리아 페스티벌에 초청해주신 빅토리아주 멜버른 한인회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우수한 안동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반려동물 문화축제 내 유기 동물 입양 홍보

오도창 영양군수 “유기 동물 가족 만들기”에 직접 나서



영양군은 13일 입양면 선배위원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맞이해 지자체와 동물보호협회가 함께 유실·유기 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무료 입양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현재 영양군은 영양읍 동부리 339번지 내 유기 동물보호소 1곳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80마리 이상 유실·유기 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소에 보호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 및 안락사되는 유실·유기 동물

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오도창 영양군수는 유기 동물 무료 입양 상담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얼마 전 구조된 유기 동물을 직접 안고 “유기동물 가족 만들기”입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은 유기 동물 입양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성숙

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입양문화 활성화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매주 화·금요일의 날로 지정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보호소에 있는 유기·유실 동물들에 대한 입양 절차를 진행해 입양 시 중성화수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 마리당 최대 25만 원의 입양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 ‘신라달빛기행’ 스타트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1회 실시, 총 6회 운영

경주의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신라달빛기행’ 지난 13일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본격 운영된다.

신라문화원이 주최하는 신라달빛기행은 지난 1994년 칠불암 달빛기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첨성대(별), 월정교(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활용한 체험형 힐링 관광상품이다.

올해는 그간 진행된 행사와는 달리 달빛기행에 앞서 13시 30분부터 무열왕릉과 서악동고분군, 불국사를 방문해 문화재 답사는 물론 음악회 감상과 사물소리영상 등을 추가하는 특별 이벤트도 5·10월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17시 30분부터 21시 까지 20명에서 40명까지 한 팀을 이뤄 운영된다. 월정교 안내부스에서 백등을 배부 받아 계림, 월성해자, 첨성대까지 달빛을 따라 별자리 스킨프린팅, 셀프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트레킹 곳곳에는 지역 예술인의 공연 버스킹과 전통주 부스 ‘달빛주막’, 선덕여왕과 요석공주와의 인증샷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더불어 지역 상인과의 협업해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별품달 플리마켓’을 비롯해 트레킹이 끝난 후

지역 예술인들의 국악, 무용, 클래식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월정교 달빛콘서트’ 공연도 열린다.

행사는 5월 13일, 6월 3일, 7월 1일, 8월 5일, 9월 2일, 10월 14일 총 6회 개최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단 5·10월은 답사코스가 포함됨에 따라 2만원이다.

행사 참여는 신라문화원 홈페이지 통한 사전접수와 당일 현장접수로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신라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미경 관광컨벤션과장은 “매년 호평을 받아온 신라달빛기행이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많은 참가자들이 동부사적지를 거닐며 신라의 밤이 주는 운치를 만끽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첨성대, 월정교 등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10월 28일까지 총 17회 국악여행 프로그램은 물론 교촌한옥마을 광장에서 9월 30일 까지 총 13회 ‘신라오기’ 마당놀이극도 선보인다.

윤태웅기자



봉화군 한-베 문화교류캠프 성료...100여 명 참가

리왕조 유적지 참배 행사 시작으로 봉화 곳곳 방문하며 교류 행사 진행

봉화군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봉화군 일원에서 진행된 ‘한-베 문화교류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한 베트남 공동체 약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지방공공에서 많은 가족들이 참가했으며 대부분 생애 처음으로 봉화군을 방문해 그 의미가 더 컸다.

한-베 문화교류캠프는 봉화 베트남마를 조성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 베트남 공동체 가족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해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교류를 통한 사업의 설명 및 홍보, 참여와 역할 분담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봉화군에 위치한 베트남 리 왕조 관련 국내 유일의 유적인 충효당, 유허비, 재실 등에서 한-베 가정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참배행사를 시작으로 봉화군 정자문화생 활관, 백두대간수목원 견학, 가족교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봉화군 춘양면 국립침소년미 래환경센터에서 진행된 가족교류행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국적을 초월



한 프렌드십 향상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봉화군은 베트남마를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인적·문화 교류를 이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하반기에 뗏목투(베트남추석) 행사 개최를 준비 중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이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봉화군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이 방문이 앞으로도 꼭 이루어져 우리 봉화군이 베트남인들의 사랑채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 베트남마를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한 베트남 리 왕조의 유적지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한-베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다문화인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정금자기자

흑두루미로 맺은 인연,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일본 이즈미시의 날 개최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13일 순천시의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이즈미시를 정원박람회로 초대해 국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여러 국가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날"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금 세계는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순천과 이즈미시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로 인연을 맺은 만큼, 지구상에 두루미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끌어주는 관계로 발전해가길 희망한다"며 이즈미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국가 날을 맞이해 벌써 세 번째 순천을 방문한 이즈미시의 시이노키 신이치(椎木伸一)시장은 "노관규 시장님의 따뜻한 배려로 이즈미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도시 순천이 10년 만에 다시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새로운 도전을 실현한 것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즈미시의 두루미 월동지가 람사르 협약 습지에 등록되고, 이즈미시가 람사르 협약 인증 지자체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순천시의 도움이 컸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이즈미시는 지난 4월 순천에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서한문을 보내온 데 이어, 국가의 날 행

사에 일본 전통공연단('와라쿠(和))을 파견해 이즈미시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일본 전통복(타이코)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유명한 이즈미시는 순천시와 2009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래 꾸준한 교류해왔다.

두 도시 간의 인연은 노관규 순천시장이 민선4기 재임 당시 이즈미시를 방문한 데서 시작됐다. 이즈미시에서 흑두루미 폐사의 주된 원인이 전봇대라는 것을 들은 노 시장이 과감히 순천만 일대의 전봇대 282개를 뽑은 결과,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가 경제를 견인하는 모델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위는 10월까지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일본 이즈미시의 날을 비롯해 세계 14개국, 17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가의 날' 행사를 통해 국내에서 쉽게 접해볼 수 없는 다양한 국제 문화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정원박람회장에서는 충남 태안군의 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으며, 14일에는 전남 담양군이 참여해 '이날치 줄타기 연희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수준 높은 전통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 참가... 열띤 홍보전

고향사랑 기부인증 및 QUIZ 이벤트 진행으로 방문객 큰 호응

전라북도는 지난 12~14일 수원메세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대축제」에 참가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자발적 기부로 이어지도록 열띤 홍보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첫해를 맞아 기획된 이번 박람회는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소개의 장이 펼쳐졌다. 이에, 전북도는 14개 시·군을 포함한 도의 풍부한 농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 전라북도만의 특색있는 대표답례품 50여 점을 전시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현장 기부자에게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2023 세계스카우트챔버리」 입장권을 제공하는 기부인증이벤트와 고



향사랑기부제 및 전북특별자치도 등 전라북도의 중점 홍보내용을 담은 QUIZ 이벤트를 진행해 심리함미(쌀)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메세시에 거주하는 A씨는 "박람회에서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됐고, 전라북도의 청정한 자연에서 생산된 답례품에 매료돼 현장에서

기부인증이벤트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벤트 참가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가는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홍보로 전북지역으로 많은 분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많은 분들의 꾸준한 지지와 관심이기"에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앞장설 것이다."며, "더 나아가 기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사용처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며 아름다운 고향사랑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NH농협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남원시,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엑스포 운영 계획 보고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엑스포 운영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엑스포의 운영 계획 등 발표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운영 대행 용역업체인 아이캔컴퍼니에서 행사의 운영 방식 및 행사장 조성, 홍보 방안 등 종합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 및 자문위원 등 참석자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보고회 과정에 나온 다양한 제안을 추가하여 추후에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운영 계획 보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많은 관광



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남원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은 2023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원에서 개최되며, 남원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 미래항공모빌리티·드론레저스포츠 엑스포'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며,

드론축구, 각종체험행사, 드론쇼, K-POP공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붐 조성을 위한 미니드론레이싱 및 드론코딩 교육이 5월 13일부터 9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말을 통해 시작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장흥소방서, 피난취약자 이용시설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탈의실 내 임시가운 비치 독려

장흥소방서는 지난 12일 불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피난취약자 이용시설에 방문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피난취약자란 사우나, 수영장 이용자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유도등·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화재로 인한 전원 차단 시 자동문 수동 개폐 방법,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탈의실 내 임시가운 비치 독려 등이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사우나, 수영장 등에서는 화재 발생 시에 이용객들이 옷을 챙겨 입는 시간 때문에 대피 시간이 지연되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자는 탈의실 내 임시가운을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재원기자

<http://chunhyang.org>

빛을 그리다

춘향

2023.5.25^목
~ 5.29^월

제93회 남원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12일 완도군에서 개막

선수·임원단 등 7천여 명 참가, 24개 종목에서 실력 겨룬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5월 12일 완도 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청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대회는 육상, 축구 등 24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7,2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 전날인 11일 오전에는 장도 청해진 유적지에서 채화식을 가졌으며, 12일 오후 5시 개회식이 진행됐다.

개회식은 22개 선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의 개회 선언, 환영사 등에 이어 ‘새로운 지평을 향해!’라는 주제로 한 공연과 성화 점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였다.

성화 봉송 최종 주자는 완도를 빛낸 4인의 체육인으로, 前 WBA 세계 챔피언 김봉준 선수를 시작으로 現 광주은행 역도부 고광구 감독, 現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 이양재 선수에

이어 2021년 PGA 챔피언스 투어 한국인 최초 우승, 대한민국 골프계의 산증인 최경주 선수가 최종 점화 주자로 메인 무대에서 골프 스윙으로 성화대의 불을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설교 이래 우리 군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체육시설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대회를 통해 완도가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해양치유 등 완도의 가치를 알려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도민의 마음과 역량을 한데 모으는 화합과 연대의 원동력이다”면서 “200만 도민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안겨줄 선수단의 건승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송가인, 장민호, 다비치, 김태현, 노라조, 상호상민 등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도 진행된다.



권역별 경기 관람, 부대 행사 체험, 해양치유 등에 참여하면 1~3만 원 상당의 기념품 및 지역 특산품을 지급하는 ‘스탬프 릴리 이벤트’를 마련했다.

청해진스포츠펀터 앞 주차장에 조성된 부대 행사장에서는 완도군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이 운영되고,

양영욱/기자

진도군, 전남도 토지행정 연수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연구, 우수사례 공유

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3년 지적·재조사 토지행정 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비대면 온라인 온택트 지적 측량 성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능 개선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해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토지행정 연수대회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실무에서 체득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도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토지행정 업무를 구현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업무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민편의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히든베이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올해 대회는 국토교통부, 전남도내 각 시·군 공무원과 대학교 교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등 250명이 참석했다.

김영진/기자



전남도 완도수목원서 자생·희귀식물 세밀화 감상하세요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오는 31일까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우리나라 자생 희귀식물을 정교하고 아름다운 채색화로 만나보는 국립수목원 순회 특별전을 개최한다.

‘한반도의 희귀식물’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선 솜뚝나무, 약난초, 물영양귀, 부채꽃 등 국립수목원이 직접 소장·제작한 세밀화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식물 세밀화는 식물의 형태를 관찰해 가는 붓으로 섬세하게 담아낸 그림을 말한다. 이번 순회전은 식물 다양성과 미세구조 이해에 도움을 주고 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석면 완도수목원장은 “녹음이 짙어지는 완도수목원에서 전시 관람과 산책을 통해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수목원 산림박물관은 2009년 국내 최초·유일 난대림 주제 박물관으로 개관해 숲의 역사, 난대림 분포·특성, 자생식물·곤충표본 등을 상시 선보이고 있다. 또 매년 지역 향토작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화순군,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오는 16일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 대상

화순군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 화순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은 코로나19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일일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대1 면접 조사로 진행되며,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이용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도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준이 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해남군 공공·유관기관 20개소 “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

해남군 공공·유관기관 1회용품 제로 청사 운영 협약 체결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확산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12일 관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20개소와 함께 1회용품 없는 청사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1회용품 사용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줄이기를 시작함으로써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확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협약식에는 해남군을 비롯해 해남

군의회, 해남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교육청학생교육원, 해남교도소, 해남소방서, 해남고등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 한국전력공사해남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해남군산림조합, 광주은행해남지점, 해남우리신문, 해남군가족센터,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등 20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중이 사용하지 않고 전자서명을 통한 협약을 진행했다.

해남군은 민선8기 해남형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해 해남형 ESG

비전선포식과 함께 5대 정책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해남군 청사와 산하기관 청사는 지난해 9월부터 1회용품 반입 및 사용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명현관 군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후손들에게 더 나은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해남형 ESG에 동참해 주신 기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1회용품 제로 청사 운영을 더욱 확대해 1회용품 제로 해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윤선애/기자

구례군 복지기동대 ONE팀 생활 불편 집중 해소 활동 펼쳐

우리는 구례군 복지기동대“ONE(원)이에요~!

전남 구례군은 지난 12일 용방면 사림마을에서 구례군 복지기동대 ONE팀이 마을 단위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구례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저소득 13가구에 여름철을 대비해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윤용준 구례군 복지기동대장은 “생활 불편 제로, 언제나 부르면 오케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을 해

결사로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며, “최근 복지위기가구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복지기동대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더불어 사는 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은 구례군청 주민복지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성현/기자

강진군 “쓰레기 없는 거리 함께 만들어요”

깨끗한 강진 만들기 범국민운동 펼쳐...매달 둘째 주 화요일 실시

강진군이 지난 9일 지역사회단체, 주민과 함께 ‘깨끗한 강진 만들기’ 범국민운동을 실시했다.

군청, 읍·면사무소 직원과 마을 이장단, 지역사회단체가 함께 버스터미널 등 시가지 일대와 주요 관광지, 국도변 등을 정비했으며, 특히 골목 등에 방치됐거나 불법투기된 생활 쓰레기 등을 위주로 수거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이 적힌 홍보물 등도 함께 배부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번 국민운동은 11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했으며, 목은 쓰레기와 대형 폐기물 등 1.1톤을 수거했다. 코로나19로 9개월 만에 재개된 거리 정화 활동은 앞으로 매달 두

째 주 화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군 직원, 사회단체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군청 환경축산과로 사전에 문의하면 된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깨끗한 강진 만들기 군민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군민 주거환경도 쾌적해지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추윤호/기자



전북도, 불법 산림훼손 특별점검 실시

행정처분 대상 산림훼손지 복구 이행사항 점검 병행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속에서 건강한 산림생태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다. 이에,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 변경 및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복구명령 등)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훼손된 산림지가 조속히 산림복원이 추진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 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영등포구, 유흥업소 마약류와 불법 호객행위 칼 빼다... 특별점검 나서

5~7월 매주 1회, 합동점검반 구성해 유흥업소 야간 특별점검

영등포구가 영등포경찰서,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지역 내 유흥업소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근절을 위한 야간 합동 단속과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사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구는 소비자식품감시원,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1일 첫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7월까지 영등포 삼각지와 여의도, 대림동, 당산동 일대 유흥업소에 주 1회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업소 종사자에게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근절 홍보를 펼친다.

덧붙여 구는 ▲유흥업소의 불법 호객행위 근절 지도·단속 ▲식품위생법 점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점검 ▲음식문화 개선 홍보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최근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호객행위 없는 건전하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지 기대한다.

한편 구는 4월 학원가, 통학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추후 구는 청소년들까지 파고든 마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약물중독의 실

태와 위험성, 발견 시 대처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주민 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약 집중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마약 특별 점검, 예방 교육, 캠페인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화선기자

부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로 현장점검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전수조사 후 종합대책 마련하여 발표 예정

부산시는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영등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통학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시는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논의해 왔다.

시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경찰청, 교육청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상태 전수조사를 5월 9일부터 17일까지 6개 분야 30개 항목(불법주정차, 방호울타리, 교위험지역, 도로 상황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단체장 책임하에 구군 관련부서, 교육지원청(학교 포함), 관할경찰서,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민간단체 등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을 꾸려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함께 합동 조사 중이다.

이에 지난 금요일(12일) 오후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부산시 행정부시장(전담팀 단장), 전담팀(TF), 구군 현장합동조



사팀, 학교운영위원회가 함께 영등포구 봉학초, 서구 천마초, 해운대구 재송초를 방문해 스크론크 내 무인단속장비,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도로·보도 폭, 경사도 등 도로 상황, 그 밖의 위험작업장 등 어린이통학로 위험 구간을 합동 점검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철저히 전수조사해 위험시설에 대해 우

선적으로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담팀(TF)과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은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위험요소를 전수조사하여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송종진기자

완도해경, 해상경비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선박 적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 필요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안전관리 중 완도 노화를 대장수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선박 A(2톤급, 정원 5명)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

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 무렵 해상경비 중이던 완도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한 선박 A호 발견하고 즉시 단속에 나섰다.

A호는 정원을 5명이나 초과하여 총 10명이 탑승하고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완도해경은 A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움츠렸던 수상레저활동이 일상 회복 이후 올해 최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양영욱기자

동해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이달 중 11곳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부서과 보육부서 합동점검

동해시가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고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섰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전안전관리 강화 및 시민 안심 제고를 위해 15일부터 26일까지 시 위생부서와 보육부서로 구성된 1개반 3명의 합동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종사자 등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정결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조치와 함께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중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21곳에 대한 점검을 하고 부적합 업소(보존식 미보관) 1곳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의 행정처

분을 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관내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올해 2~3월, 청소년유해업소 집중수사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 등이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

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거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대형공사장 여름철 안전점검 실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5월 22일부터 한 달간 관내 대형공사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6월, 7월 강수량이 각각 109mm, 149mm, 281mm으로 예보됨에 따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이전에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공사장의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시 건설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절·성토 사면 보호 대책 ▲비상대기반 및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양수기, 비닐, 천막 등 수방자재 비치 및 관리 상태 ▲하천 편입 공사 현장 하천 내 유수 지장물 정비 실체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 △등배리 상태 등이다.

건설관리본부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긴급 조치 후 상세한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올여를 열니노가 발달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기자

경북교육청,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 전수 및 표창 수여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4명, 장관 표창 153명 등 337명 표창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평소 학생 지도에 헌신한 유공 교원들에게 정부포상 전수와 함께 교육감·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 교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은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스승의 날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 수상자는 △근정포장 1명(박기환 의성유니텍고 교장) △대통령 표창 6명(이미정 황성초 교사, 변명은 도량초 교사, 박의분 북주여중 교사, 이광호 구미산동고 교감, 임정현 선산고 교사, 서경순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국무총리 표창 4명(장은영 동양초 교사, 장세호 월향초 교사, 방현숙 선주중 교

사, 이준홍 길원여고 교사) △교육부 장관 표창 153명(권정인 진보초병설유치원 교사 외) △교육감 표창 153명(강경순 초곡초 교사 외) △도지사 표창 20명(남선미 환호여중 교사 외) 등 총 337명이다.

근정포장을 받은 의성유니텍고등학교 박기환 교장선생님은 20년간 기능 지도 교사로 재직하면서 특성화고 제자들에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23개 거점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로 선택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경북교육청 직업교육 장학사로 재직 시 취업률 제고 전략을 기획·운영

해 전국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 경북의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 외 수상자는 △기초학력 신장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교과 지도, 학교 폭력 및 부적응 학생 지도 등 생활지도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 및 특기·적성 교육 등 진로직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교육복지 분야에서 교육발전에 공헌한 우수 교원으로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들의 귀감이 되는 교원들이 선정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 포상 및 표창을 받은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담아 축하한다"고 전하며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북의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교육청, 늘 선생님 곁에서 함께 하며 교육활동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육, 업무 등 직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교권 존중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지난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3~6개 교육지원청을 집중지원 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상담 지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심리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뿐 아니라 교과 지도와 생활교육, 교직원과의 업무 갈등, 학부모 관계 등 직무 관련 스트레스까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4월 교권전문상담사의 상담이 378건인 것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794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 ▲법률 자문 ▲심리상담 ▲긴급지원팀 운영으로 장학사와 변호사 현장 지원 ▲교육활동 보호 책임관·업무 담당자·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힐링 성장 프로그램 ▲센터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원이 자아존중감을 회복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전문 강사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운영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해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원이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소통 공감 프로그램을 7월 중 추진해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심리·정서 어려움 겪는 학생 지원은 우리 손으로” 전남 교육청,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연수

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24일, 5월 4일, 5월 15일 광주 어반브룩에서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42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Wee클래스가 위기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지속적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성공관대학교 교육학과 이동훈 교수를 초빙해 △ 자살로 인한 트라우마의 심리적 위기와 적응(1차) △ 비자살적 자해 특성과 청소년 트라우마(2차) △ 자해 시도 학생 상담기법 및 사례 슈퍼비전(3차)을 주제로 이뤄졌다.

연수에 참석한 중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코로나 이후 학교생활 적응 또는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Wee클래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애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비자살적자해 등의 위기사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회가 됐다.”며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부산교육청, 초등 저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직후 발생하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온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저학년 집중 에듀케어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입학 후 조기 하교, 개별 등·하교 등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입학 후 3월 초' 또는 '1학년 1학기' 기간을 정해 운영해왔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교실 입학 대기 학생 수,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3월 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며 이를 통해 돌봄교실 입학 대기 학생 61명을 포함한 242명의 학생들이 교육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1학년 1학기 운영 학교 4교 중 2교도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12월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 운영 학교들의 1~2학년 담임교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정규 수업 후 오후 3시 30분까지 담임 학급 또는 이웃 학급 학생들을 돌보

다. 학생들은 놀이 한글, 놀이 수학, 놀이 영어, 음악·미술·체육, 책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 위해 총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 **답례품 구입**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



제62회 The 62n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023. 5. 12^금 ▶ 5. 15^일 (4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전라남도체육회

【주관】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후원】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제31회 The 31st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5. 24^수 ▶ 5. 26^금 3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 | JNSAD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